

정세균 “튼튼한 경제대통령 되겠다”

대선출마 선언...野 대선주자들 차별화 전략 지지율 올리기 시도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26일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손학규·문재인 상임고문과 3선의 조경태 의원을 포함, 4명으로 늘었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 김영환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는 7월 상순경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돼 민주통합당 경선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동영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도 큰 상황여서 민주당 경선은 8명의 잠룡 간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고문은 이날 종로 광장시장에서 “국민의 힘을 믿는 대통령, 정의의 세우는 대통령, 기본을 튼튼히 하는 대통령, 중산층과 서민의 든든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꾸어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난다”며 “내수진작의 힘으로 투자와 생산이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함께 누리고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공동체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공동체가 합심해서 더 넓고 든든한 복지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빈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내일을 여는 든든한 경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을 3대 목표로 내세운 뒤 ‘하이스피어’ 주택의 임대 전환, 사교육 전면 폐지, 5000개 중견기업 육성 등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특목고 대폭 정비, 국립립대학 등 공공부문부터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을 통한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 폐지를 약속했다.

정 고문은 15~18대 전복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구에 이어 19대 종로에서 금배지를 단 5선 의원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당의장, 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정당의 주요

직을 두루 거쳤다. 이처럼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주요 주자들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지율 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고문은 ‘소통과 경청’을 앞세운 민생·현장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2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뒤 28~29일 1박2일 일정으로 지역구인 부산을 방문한다. 지난 17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부산행이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온화한 인사풍 이미지를 벗고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 의원은 “문재인 불가본”을 내세우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이후 27일 첫 정책발표회를 개최해 정책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두관 지사는 다음달 10일경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민주당경선협의회를 갖는 등 출마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섬기는 정치”를 모토로 마을 이장에서 경남지사까지 성장한 이력, 야당 불모지인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경험력을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서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경선캠프 출범 ‘초읽기’

‘불통’ 극복 과제...이정현 “경선을 내달 9일까지 논의 가능”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약점으로 꼽혀온 불통의 문제가 대선 6개월여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18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비박계 진영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헌·당규상의 경선틀을 고수하면서 잠복했던 문제가 또 두드러진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불통의 이미지가 덧씌워질 때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소통의 출구를 찾았던 전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선을 고수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었음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소통의 카드를 제시해 유연하고 열려있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선캠프의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실무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어 가동 중이나 다름없으며 대외에 공개하는 수순만 남겨뒀다는 얘기도 들린다.

홍사덕 전 의원을 좌장으로 최경환·유정복·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의원들이 배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캠프에 합류할 외부 인사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김종인 전 장관, 이상돈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당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릴 때와 같은 깜짝 인선이 캠프의 배일을 벗기며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6일 S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선 경선을 갈등과 관련, “우선 당헌대로 일을 진행하자”라며 “(경선 후보 등록 전날인) 7월9일까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고위가 전날 의결한대로 현행 경선틀에 따라 8월19일 대선 후보 경선, 20일 대선후보자 선출의 일정을 진행하며, 후보 등록 전날까지 경선틀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 ‘부정경선’ 갈등 2라운드

신·구당권과 2차 진상보고서 대립...비례대표 9명 목표 확인

통합진보당 신·구당권과가 26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한 2차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새벽부터 밤샘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8대 2로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을 위해 오후 4시부터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운영위원회의를 열었다. 신·구 당권과가 충돌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가 운영체제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투표에서 총 9

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특정 IP에서 물표를 받은 내용이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IP에서의 물표 비율이 문경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7.53%, 오육만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11.22%, 윤갑인재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 10.28%,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9.68%, 이석기 의원 4.72% 등으로 계과에 상관없이 특정 IP에서의 물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특정인에 의한 대리투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총체적 부정·부실선거’라고 규정 내

린 1차 보고서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당권과는 신당권과가 특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부실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김동한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구당권파인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의 거수기 노릇에 열중한 2차 진상조사 특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선출방식 완전국민경선 적극 검토

민주통합당은 18대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와 가까운 경선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대선 주자들이 모바일 경선 등 국민 참여경선이 이뤄질 경우, 특정 조직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후보 경선준비기획단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 경선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선준비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추

미에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국민이 최대한 참여하는 경선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출마자의 투표일 1년 전 지도부 사회 규정 제정도 문제와 관련, 경선준비기획단에서는 “규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이 경선틀을 사실상 확정된 만큼 민주당의 경선 틀 마련도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경선 일정과 틀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내일 첫 지역현안 정책토론

‘광주은행 민영화’ 주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이 28일 광주 시 서구 치평동 세계 광역스포 주제관에서 ‘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지역현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은행의 바람직한 매각방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장병완 광주시당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범 금융위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임병진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장병완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40여년 간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큰 공을 세운 광주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국가 금융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지역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野,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법 입법 청원

이용성 정책의장,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성·김상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법원이 최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자, 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청원서에서는 영업시간의 경우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전국 245

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철저히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용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의 무휴업, 휴일제 등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지자체들도 이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민주당 기관장인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있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